

## 큰 요한복음 7 권, 18 장

### 하나님의 원래의 일곱 영들. 구속.

원래 창조 된, 큰 영들은 바로 하나님 안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신비한 숫자 7 은 근원적으로 완전히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 안에, 하나님이 파악한 모든, 마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처럼, 하나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의 첫 번째 영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은 생성된 모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영이 없이는 어떤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은 사랑에서 오는 빛으로써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을 또한 모든 존재의 형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더 많이 빛을 받을 수 있을수록, 존재의 형체는 더 발전되어 있고, 더 결정적이고,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세 번째 영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통해 생각해둔 존재가 비로소 실체가 되고, 그러면 이 실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속이 빈 생각과 아이디어이고, 절대로 역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랑, 지혜, 의지에서 나오는 네 번째의 영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어떤 존재도 계속 존재하는 꾸준한 형태를 가질 수 없음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이 황소 뒤에 쟁기를 달았는데, 황소가 물고기나 새로 모양과 형태가 바뀌면, 당신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이 입에서 돌로 변하면, 과일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단단한 길로 어딘가로 갈 때, 당신의 발 아래 길이 물이 되면, 심지어 가장 단단한 길조차 당신에게 유용할까요? 이 모든 것과 무수한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네 번째 영인 신성한 질서에 의해 방지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다섯 번째 영은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신실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은 하나님 안의 영원한 진리와 같고, 모든 존재가 비로소 진정으로 유지되게 하고, 번식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궁극적인 완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신실의 영이 없으면, 모든 존재에게 매우 나쁠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볼 수 있을 때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신기루를 만들어낸 조건이 바뀌자마자 아름답고 훌륭한 구조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또한 매우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존재들을 생성한 근원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존재들은 절대로 계속 존재할 수 없는, 비어 있는, 최고로 헛된 구조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다섯 가지 큰 원래의 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영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지혜와, 전능한 의지와, 가장 완벽한 질서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신실함이 있는 곳에, 최고의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인내가 또한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이는 모든 것이 서로 밀쳐내야만 하고, 마침내 이 전의 방식의 혼란에 빠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다른 성품들 중에 인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내가 부족하면, 그는 그의 집을 절대로 완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내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한한 시간 동안 가장 끝없는 공간에서 지구에 비치는 태양이 없을 것이며, 영의 세계는 아주 특이하게 보이고, 아무 존재도 없게 보일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공휴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여섯 번째 영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어디에 설 것이고,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무엇인가가 부족해, 이로 인해 신성한 사랑, 지혜, 신성한 의지와, 이 전의 사랑, 지혜, 의지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에 의한 파괴적인 저주가 나타나면, 우리는 신성한 인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을 균형이 되게 하고, 인내가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아주 완벽할지라도, 멸망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균형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 안의 다섯 가지 영과 함께, 하느님의 인내는 실제 행성들에 한 사람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고, 동시에 또한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육체 안에서 끝없이 긴 기간 동안 살 것이며, 혼이 마침내 물질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일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숫자의 동물들, 식물들과 사람들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세계에서 생활하게 되어, 결국에는 한 존재가 더 이상 다른 존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 행성이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의 세계 아래 식물, 동물 및 사람들을 유지하고, 먹일 수 있게 성숙할 때에 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알려진 여섯 영들만으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일도 무한하게 지연될 것이며, 한 세계가 물질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매우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인내는 하나님의 공휴의 어머니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곱 번째 영은 우리가 온유라고 부르기 원하는 공휴입니다. 공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끅니다. 공휴가

이전의 모든 영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때에 한 세상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긍휼은 모든 것에 일정한 시간을 정했으며, 이로써 성숙하게 된 영들은 빠르고 쉽게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 그들의 영원한 자유와 삶의 전적인 독립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의 일곱 번째 영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 모든 포로가 된 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심판인, 물질의 굳은 묶임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내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 육신을 입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늘과 세상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런 창조물 안에서 전적인 균형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와 같이 역사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안의 질서의 영에 따라, 이와 같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는 당신이 이제 알게 된, 하나님 안의 일곱 번째 영이 단지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실현이 될 정도로만 다른 영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긍휼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결과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에 의해 창조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곱 영에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의 일곱 영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초기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창조와 동시에 연속적인 창조하는 일을 "여호와의 전쟁" 이라고 불렀습니다.

### **큰 요한복음 7 권, 19 장**

#### **여호와의 전쟁.**

(라파엘 : )»하나님의 일곱가지 영이나 하나님 안의 특별한 성품들이 항상 한 성품이나, 영이 항상 다른 성품이나, 다른 영이 행동하도록 요구하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싸우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같은 싸움이 이뤄지는 일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장님이고, 사랑이 추구하는 일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구하는 일 가운데 점화되어, 빛이 나오고, 이 빛은 사랑 안의 이해와 지식이 됩니다.

빛이 때때로 순수한 사랑의 노력에 맞서 싸우고, 사랑이 질서에 이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러나 이 투쟁이나 전쟁에서 동시에 사랑과 사랑의 빛을 행하는 손으로써, 빛이 현명하게 정리한 일을 실행하는 의지가 깨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을 통한, 그리고 사랑과 빛의 두 가지의 능력을 통한, 사랑의 깨달음으로부터 동시에 질서가 나옵니다. 이 질서는 빛과 사랑의 의지를 통해 질서가 없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계속 싸웁니다. 당신은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네 가지의 영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정리된 역사를 행하여,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잘 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이제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네가지 영들의 모든 훌륭한 작품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놀이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주 장인과 같이 정리된 여러가지 작품을 만들지만, 작품을 즐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여전히 즐기지 않고, 그들이 이 전에 작품을 만들었을 때보다 더한 열심으로 다시 파괴합니다. 친구여, 그러면 진실로, 창조된 모든 것이 전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네가지 영으로부터 완성한 역사의 완전한 성공에 대한 큰 기쁨으로 인해 다섯 번째 영인 신실이 나타나,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 안에서 한번 만든 작품을 즉시 멸망시키고, 전멸시키는 일에 맞서 싸웁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 이해심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집과 포도원을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지만, 전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파괴하는 일을 거론한 것처럼 빠르게 집과 포도원을 파괴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이미 말한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어진 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함이 나타나고, 포도원은 여전히 원하는 수확을 내지 않으면, 집과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그의 노력과 열심히 일한 신실함에 대한 후회를 느끼고, 그러므로 집과 포도원을 즉시 파괴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집과 포도원을 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영이 이런 신실함에 대항합니다. 여섯 번째 영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인내라고 불립니다. 보십시오. 인내는 집과 포도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다른 새로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의 영들과 연합이 된 인내는 그 집이나 포도원을 특별히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그곳에서 진행이 되게 하고, 서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온유, 돌봄, 근면, 사랑 행함 및 관대함을 포함하는 일곱 번째 영, 즉 긍휼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수정하여, 어떤 의미의 결함도 없게 하고, 포도원을 갈고, 비옥하게 하여, 곧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은 하나님과 천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시 여호와의 싸움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안에 참되고 완전한 삶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준 일곱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마찬가지로 천사 안의 이 싸움은 마치 일곱 영들 중 하나가 또는 다른 영 하나가 마치 다른 영을 억누르고,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한 영이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영을 영원히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각각의 영이 다른 모든 영안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다른 모든 여섯 영 안에 있고, 마찬가지로 빛이나 또는 지혜가 사랑 안에 그리고 다른 다섯 영들 안에 있습니다. 이로써 각각의 영 안에 다른 모든 영들이 역사하고, 항상 역사하면서 임재해 있고, 계속하여 가장 아름답게 같은 정도로 지원합니다.

## **큰 요한복음 7 권, 20 장**

### **사람 안의 일곱 영의 부조화. (원래의 성품의 부조화)**

(Raphael : )» 그러므로 사람 안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히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집니다.

일곱 영이 자신 안에서 온전하고, 균등하게 역사하게 하여, 이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처럼 되는 사람은 단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피하고, 이 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으므로 인생 자체의 진정한 비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맹인이요, 반절은 죽은 사람들은 인생의 기본 목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곱 영중 단지 한 영의 인도를 받거나 또는 다른 영의 인도를 받고, 이 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순전히 사랑의 영으로 살고, 다른 영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탐욕스럽게 먹으려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맹수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이웃 사람을 강박한 심장으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매우 현명하며,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과 빛과, 의지의 영들이 온전히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질서의 영과 신실의 영이 매우 약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또한 매우 현명하고, 때로는 매우 현명하게 말하고, 때로는 여기 저기에서 개별적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일곱 가지 영으로 실제 아주 현명한 사람은 곧 그의 단어와 말하는 것과 행위를 통해 질서와 연관성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과 빛과 의지와 질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의 영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 하고, 무서워하고, 그의 역사는 희귀하게 모든 효과를 전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실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약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서두르고. 그의 인내심이 없는 열심으로, 어떤 것이든 좋게 만들기 보다, 자주 더 많이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올바른 인내가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포도를 수확하려면, 포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다리기를 꺼려해, 고귀한 포도주 대신 마실 수 없는 신 포도주를 얻으면, 자신에게 잘못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영입니다.

첫째로 내가 신실이라고 불렀던 종종 무한까지 가기 원하는 신실의 영을 다스리고,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신실의 영은 사랑, 지혜, 의지와 연결되어 가장 큰 교만으로 변질되고, 그러면 알려진 바대로 사람의 교만에 제한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내가 이미 보여 드린 것처럼, 인내는 먼저 긍휼의 영의 어머니이기 때문이고, 긍휼의 영은 모든 이전의 영들에게 소급해 역사해, 신적이고 영적인 완성에 이르게 하고, 인간의 혼이 영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이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당신 심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라. 내가 모든 심장을 다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사람들에게 일곱 번째 영을 훈련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영들을 포함하고 있고, 훈련시키는 영이 바로 이 마지막 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열정으로 이 마지막 영을 형성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은 또한 이전의 영을 형성하고, 강하게 하고, 이로써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육을 한 영이나 또는 이전의 여러 영들로 시작한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한 삶의 완성에 도달하기 어렵고, 종종 전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영들은 순수한 그들 자체 안에 일곱 번째 영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긍휼은 자신 안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행되는 영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천사의 타락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아이디어의 타락은 그들 전체가 사람의 성품 안에서 일곱 번째 영 자체를 진정한 최고의 완성에 이르기 하지 못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영들은 거의 모든 피조물에게 부분적으로 크거나 적게 그냥 주어지지만, 그러나 일곱 번째 영은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통해 먼저 얻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여섯 영 모두를 획득함으로 비로소 긍휼의 영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목적에 달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오직 긍휼의 영을 통해 비로소 전적인 삶의 자유와 독립성에 도달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실제 이해했는지 묻습니다.«